

잠언에서 퍼올린 경청의 지혜

캐서린 밀러/ 크리스천 작가

가방과 성경책 그리고 차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제인에게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제인은 “안녕, 시간 좀 있니”라고 말했다. 성경공부 멤버들에게 언제라도 전화하라고 말해 놓았던 터였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있다고 대답했다. 제인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라가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풀이 죽어 있었다.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라의 결정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낙담한 그녀의 기분에 공감해주기보다는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제인을 설득했다. 그리고 나서 가 볼 곳이 있다고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러고 난 뒤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잠언을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고 잠언의 많은 구절들이 경청과 부주의한 말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말을 신중하게 골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제인에게도 바로 그런 반응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깨우쳐 주심에 반응하여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삼가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정이 새롭게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남편과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고 내 친구들은 내가 그들과 대화하는 방식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 경청함으로써 나는 그들의 두려움과 기쁨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나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열렸다.

잠언은 몇 가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청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경청이 어떻게 우리의 우정을 강하게 해 주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깊이 있는 경청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잠 20:5). 제인은 나와 짧은 통화를 끝낸 뒤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했다. 후일 그녀는 그 목사님이 자신의 말을 조심스럽게 경청했고, 또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

그리고 제인은 곧 자신이 그런 식으로 반응한 이유의 뿌리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사라와 같은 절친한 친구를 다시 얻을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목사님이 깊이 있게 경청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목사님은 제인이 직면하고 있는 더 심층적인 문제를 표면화시키도록 도왔던 것이다.

우리 역시 경청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의 친구가 표현하는 감정을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라. 그녀가 혼란스러워 보이는지, 혹은 슬프거나 화가 나 있는지는 않는가? 친구의 감정 상태에 반응할 때 문제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질문과 “나라면 너무 절망스러웠을 거야”라거나 “그래서 기분이 나쁘겠구나”와 같은 공감적 표현을 이용하라. 당신의 친구가 겪고 있는 감정들을 확인해 주면 그 친구는 이해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더 깊은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은 친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해하는 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잠 18:2). 우리의 친구가 자신의 문제와 상처를 나눌 때 즉각적으로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반응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때로 즉각적인 대답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지 못한다.

심리학자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무의미한 대화 혹은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끄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가장 흔한 반응은 ‘평가’하는 것, 즉 상대방이 나눈 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판단을 하는 식이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끈질긴 성향을 갖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평가’는 종종 관계에 장벽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를 범하는 것으로 끝난다. 제인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슬픔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이해해주는 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였지만 나는 그녀를 ‘평가’하고 말았던 것이다.

끼어들고 싶은 충동 이기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잠 18:13). 우리는 또한 지나치게 어딘가 몰두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제대로 경청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경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산만해지고 그것이 생활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경청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서 의도적으로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는 않는가? 경청하는 대신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내용에 더 생각이 가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한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그의 말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미안해. 금방 네 말을 가로막았어. 하던 말을 계속해 줄래.”

Florence Littauer는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의 말에 경청하는 방법을 소개해 준다. 수다스러운 바바라는 내성적인 그녀의 딸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면 커피 물을 끓이고 바나나를 집어든다. 그녀는 딸과 자리에 앉아 커피를 조금씩 마시며 딸의 말을 듣는다. 딸의 말에 끼어들어 충고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 바나나를 한 입 베어먹는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기 가장 쉬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제대로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더 훌륭한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은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거나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키는 식의 아주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다.

경청과 치유의 손길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잠 12:18). 우리는 함부로 달리는 운전자를 쉽게 구별하지만 함부로 말하는 혀, 특별히 우리 자신의 혀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의식하고 있는가? 예민하게 듣는 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릇된 반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위험성이 있다.

내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최근에 젊은 부부에게 미니 밴을 구입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거래를 하면서 그는 그들에게 자녀가 있는지 물었다. 남편은 딸이 지금쯤 여섯 살쯤 되었을 것이고 두 살 된 아들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딸이 죽었다는 뜻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반응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이 말한 내용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그들의 딸에 대해 물어 보았고 그래서 그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의 현명한 반응으로 그들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자극하는 대신 위안을 줄 수 있었다.

신중한 말, 그리고 진지함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잠 15:28). 함부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대답을 적절하게 재어보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있다. 가족이나 친구가 우리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부모님이 힘들게 한다거나 혹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말을 할 때, 그들에게 경솔하게 표현을 하거나 더 자세히 말해 보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는가?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경청 상태가 어떤지 드러낸다. 어떤 이들은 공감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결여된 말을 듣기도 한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느냐는 우리가 친구의 고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반영한다.

포기함으로 유대감을 얻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19). 내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읽은 후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그 내용에 끼어들고 싶은 상황에서도 듣기 위해 애썼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물어보면 그때서야 대답했다. 내 말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하려던 말을 포기하고 의식적으로 말보다는 보디랭귀지와 얼굴 표정으로 반응했다.

내가 덧붙이려고 했던 것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때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많은 말을 할 때보다 경청하게 된 후에 그 그룹의 멤버들과 서로 유대감이 더 깊이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지혜의 샘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어”(잠 2:6). 제인이 내게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내게 성경적인 지혜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혹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녀의 짐을 덜어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그러한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성도로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말을 하기를 바란다면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그럴 때만 우리의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적절한 특별한 성경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안하기 앞서 여전히 신중하게 경청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마치 그분의 ‘만능 해결 책자’처럼 다루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미루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 안에서 자라게 되면 그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친구의 말에 경청하고 있을 때 그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낙담한 친구들에게 지혜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사려 깊은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게 할

것이다.

캐서린 밀러(Kathleen Miller)/ 크리스천 작가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인디아나의 무레스빌의 마운트 길리아드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7월호 266-269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durano.com/moksin>).